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 개막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총 200여점 작품전시

아시아권의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통해 아시아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경기북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서 포천시가 발전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가 10월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11개국 150여명의 작가들의 다양하고 예술성이 깃든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세계 미술계에서의 아시아 미술의 높은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만남 ’을 주제로 열린 포천아시아비엔날레는 주제의 컨셉에서 제시하듯 평화를 향한 길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예술 작품을 통해 사랑과 문화 그리고 예술 모두가 하나로 소통되고 교감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행사는 본 전시, 특별전시, 시민참여프로그램, 특별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 본 전시에는 ‘한·중·일, 전통 이후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3국의 16작가의 작품을 비교하여 미술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네오 팝(Neo-Pop)’ 경향과 그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아시아현대미술의 만남’의 주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대만, 체코, 이란 등 총 43명의 43작품이 초청되어 동시대 아시아 지역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이 만



아시아권의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통해 아시아 미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경기북부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서 포천시가 발전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가 10월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남을 통해 각 국가의 특성을 볼 수 있는 장을 의도했다.

아울러 특별전시에는 포천 지역 출신 조각가 8인의 조각전 귀향(returning home), 포천지역 서예가 50인이 참여하여 진행되는 서예특별전, 회화전 등이 전시되며 시민체력프로그램인 아트다트(art-dart-Box)를 한선현 조각가의 진행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김기라 작가는 서울과 포천을 운행하는 아트셔틀(art-shuttle)을 제작해 1일 1회 왕복 운행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미술의 흐름을 음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자라나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에게는 미술에 대한 경문을 높일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일

반 시민들에게도 예술적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7포천아시아비엔날레 양주승 홍보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많은 포천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며 “수준높은 작품감상을 위해 전 포천시민이 관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79

역사를 기록하는 붓은 아무나 잡을 수 없다

1519년 조광조가 변을 당하는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체세영은 춘추관의 기사관(記事官)이었다. 그는 조광조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곧장 대궐로 들어가 영의정 정광필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정광필 역시 그 내막을 자세히 몰랐으므로 가만히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자 체세영은 다시 남곤에게 물었다. 남곤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듯 우물쭈물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입금 앞에 이르자 정광필이 체세영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역사를 기록하는 붓은 아무나 잡을 수 없다.” 그러고는 입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입금에게 감을 올리는 신하는 아니옵니다. 제가 말고 있는 일 외의 일을 전하께 아뢰는 것은 죄가 되오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는 것인지 죄명을 듣고자 하나이다.

영의정도 모르는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우의정이 있으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죄우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목을 움츠린 채 눈을 피하였고, 우의정 안당도 고개를 돌리며 헛기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로부터 붓을 빼앗아 잡으며 말했다.

“역사를 기록하는 붓은 아무나 잡을 수 없다.”

그러고는 입금에게 아뢰었다. “신은 입금에게 감을 올리는 신하는 아니옵니다. 제가 말고 있는 일 외의 일을 전하께 아뢰는 것은 죄가 되오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는 것인지 죄명을 듣고자 하나이다. 영의정도 모르는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우의정이 있으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죄우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목을 움츠린 채 눈을 피하였고, 우의정 안당도 고개를 돌리며 헛기

침만 해댔다.

훗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체세영의 기개를 칭찬했다.

“이 세상에 군자는 오직 체세영 한 사람뿐이다.”

기묘사화로 일시에 뜻 있는 선비들이 모두 화를 당하고 쓰러져 자 오직 그만 우뚝 남아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빛났다.

체세영(蔡世英) 1490년(성종 21)~1568년(선조 21).

본관은 평강(平康)이며 자는 영지(英之). 호는 임진당(任眞堂)이다. 1510년(중종 5) 진사에 합격하고, 1517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519년 검열을 거쳐 춘추관 기사관이 되었다. 기묘사화 때 파직되었다가 복직된 후 1537년 대사성이 되었고, 1539년 형조참의에 이르렀다.

명종 때 여러 벼슬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1550년 호조참판으로 동지춘추관을 겸직하였고, 『중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공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지내고 우참찬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포천시 일동면 가을 행사 풍성

면민걷기대회 오뚜기 그린음악회 개최

포천시 일동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윤삼)에서는 10월1일 따사로운 가을을 맞아 일동레이크G.C.에서 황영철 부시장을 비롯

한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살이 일동지킴이 면민선언과 함께 면민걷기대회와 음악회를 개최했다.

참살이 일동지킴이는 일동면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운동으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한 포천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면민걷기대회와 음악회는 면민의 심신 단련을 물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가을축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오늘 시민걷기 행사는 일동레이크 골프코스에서 이루어졌는데 맑고 높은 가을 하늘아래 탁 트인 잔디밭과 일동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려한 풍경에 많은 주민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관내 기업체 및 사회단체로부터 TV, 냉风机,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어 학생과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일동중학교 사물놀이, 8사단 군악대 연주와 불꽃놀이로 일동면민이 즐겨하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하루가 되었다.

김영복 기자 est114@paran.com



포천시 일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0월 1일 일동레이크G.C.에서 황영철 부시장을 비롯한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살이 일동지킴이 면민선언과 함께 면민걷기대회와 음악회를 개최했다.

박강성 콘서트 11월17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오후 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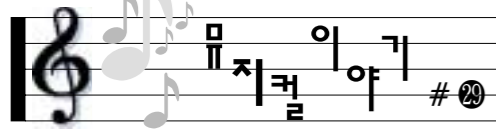
박강성콘서트가는 오는 11월27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오후 7시30분에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R석 40,000원, S석 30,000원이며 6세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콘서트를 준비하는 박강성은 공연감을 통해 “노래는 제게 있어서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치유하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영복 기자 est114@paran.com



박강성콘서트가는 오는 11월27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오후 7시30분에 개최된다.



주디 갈랜드(Judy Garland)의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 1939)>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는 한국에서도 기성 무대나 초등학교 등에서 자주 공연되는 황금 레퍼토리이다.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매년 여러 편의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가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데 가정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남아있다. 1930년대 할리우드는 아역스타 셸리 템플(Shirley Temple)의 시대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Gone with the Wind))의 클라크 게이블(Clark Gable)이 할리우드의 영원한 우상으로 간주되기는 했지만 셸리 템플의 인기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1930년대 말에 셸리 템플에 이은 또 하나의 아이돌 스타가 탄생했다. 주디 갈랜드(Judy Garland, 1922~1969)는 셸리 템플의 인기에는 비교가 안 되지만 뮤지컬의 천부적인 아역스타로 셸리 템플을 압도했으며 비운의 스타로 간주되기도 한다. (50년대 할리우드 뮤지컬에서 주디 갈랜드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주디 갈랜드는 오늘날까지도 영화 마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셸리 템플이 오랜 경제공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간단한 탭댄스와 한 두곡의 노래로 삶의

희망을 주었다면 주디 갈랜드는 감탄할만한 노래실력과 연기로 진정한 뮤지컬 영화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1939년에 <오즈의 마법사(The Wizard of Oz)>가 개봉되었다. 16세의 나이에 주인공 ‘도로시’ 역을 완벽히 소화해낸 주디 갈랜드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주디 갈랜드가 부른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는 시대를 초월한 명곡으로 심지어 노래방에서까지 애창되고 있다. 셸리 템플이 이십세기 폭스 영화사의 커다란 자신이었지만 주디 갈랜드도 MGM 영화사의 흥행 보증수표였다. 특히 미키 루니(Mickey Rooney, 1922~)와 콰버블이론 일명 ‘베이브스(Babes) 시리즈’는 백스테이지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의 명작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리즈는 버스비 버클리(Busby Berkeley)의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다. 1935년에 주디 갈랜드는 스크린 테스트 없이 과거적으로 MGM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하기 수개월 전에 MGM 영화사가 준비한 클라크 게이블의 생일파티에서 ‘유 메이드 미 러브 유(You Made Me Love You)’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는데 주디 갈랜드의 놀라운 가창력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이를 계기로 영화사는 바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아역배우 셸리 템플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물론 그녀의 영화를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특히 주인공 주디 갈랜드, 빨간 구두 그리고 극중에서 도로시를 따라가는 토트(Toot)라는 강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다. 현재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뮤지컬의 고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주인공 도로시(Dorothy) 역의 첫 번째 선택은 갈랜드였다. 당시 미국의 희망으로 간주되었던 셸리 템플이 도로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전속이었던 셸리 템플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MGM 영화사에 임대될 수 없는 관계로 출연이 무산되었다. 많은 관계자들과 영화 마니아들은 실망스러워 했고 주인공 역할을 할 만한 배우가 셸리 템플이 아닌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렇지만 주디 갈랜드가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쳤다. 놀라운 가창력과 연기력을 선보이며 완벽하게 캐릭터를 창출해냈다. 만일 셸리 템플이 ‘도로시’ 역할을 했다면 세기의 명곡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를 얼마나

소화해 낼 수 있었을까. 당시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주디 갈랜드의 가장 목소리에는 극도로 낮은 음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인 비브라토(vibrato)를 가지고 있었다. 비브라토는 노래할 때 폭넓은 감정을 실어 낼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훗날 주디 갈랜드는 뮤지컬 <스타 탄생(A Star is Born, 1954)>에서 ‘더 맨 댓 갓 어웨이(The Man That Got Away)’라는 곡을 통해 자신 물론 주디 갈랜드의 가창실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된다.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갈랜드는 바로 셸리 템플의 영화 <브라이트 아이즈(Bright Eyes)>에 출연한 바가 있는 명적으로 셸리 템플이 애지중지한 강아지인 토트와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기억하는 어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침내 고을 선비들이 이 안순창 효자의 효행을 상소하였다. 상소문을 본 순창의 효행에 대해 나라에서는 급복(給復:부역의 의무를 면제하는 양반 대우)을 명하였으니 상민에게 주는 영광이었다.

효자 안순창은 양반도 아닌 상민으로 날품팔이로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양반도 하기 힘든 살신성인(殺身成仁)의 효(孝)를 다하였다는 점이 본받을 만하다. 만약에 안순창이 양반이었다면 효자 정문이 내려졌을 것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끼게 한다.

강원도 회양 사람이 효자 고을인 내 고향 포천에 와서 보고 듣고 배운바있어 지극히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까지도 효자비를 세우면 어떨까?

필자연락처 02-932-2434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13)

효자「유회일」과「안순창」의 지효(至孝)

아버지 참관 추담공(秋潭公)이 일동면 유동리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관례에 따라 3년동안 시묘(侍瘞)살이(묘 곁에서 묘를 돌보며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고 이발, 목욕도 안하고 사는 정성어린 효자의 삶을 말한다.)를 하는 도중 노숙(路宿)(묘막을 지어 살지 않고 묘 앞에서 자고 사는 삶)을 하다가 죽었다. 나라에서는 상중에 죽은 효자 유회일공에게 정문(旌門)을 내렸는데 6·25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창원 유씨로 참관 유창(俞昌) 추담공(秋潭公)의 아들이다. 일찍이 현석 박세재(玄石 朴世采)의 아들 같은 제자로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력이 매우 높았다

한다. 의금부 도사(義禁府) (都事)에 제수되었으나 은거하면서 학림에서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였다. 은거하고 있던 양양평에서는 선비들이 물제사(勿齋)를 세울 향사(享祀)하였다 한다. 효자 안순창(安順昌)은 고향이 강원도 회양인데 영조7년(1731년) 내촌면 소하리에서 살았다. 그런데 효자 안순창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못자리에다 어머니를 써서 등에 업고 나왔다. 그런데 효자 안순창 자신은 몸이 불덩이가 되어 타고 큰 화상을 입고 쓸어지면서도

어머님의 생존을 묻고 유언을 하였다. 안순창 효자는 이렇게 죽었다. “우리 집 소를 잡아 어머니 봉양하는데 쓰고 만악에 돌아가시면 팔아서 장례 치르는데 쓰고 나의 일에는 조금도 쓰지 마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을 남기자마자 효자 안순창은 곧 죽었다. 10여일 뒤 효자 안순창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한다. 아내는 남편인 효자 안순창의 유언대로 소를 팔아서 장례를 극진하게 모셨다. 이 사실을 본 마을 사람들은 물론 고을 사람들은 효자 안순창과 그의 아내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

초대 漢詩

讚毅菴柳先生倡義(찬의암유선생창의)



崔光圭 포천명유회 회장

先生愼毅菴靑春(선생분노기청춘) 倡義精神感愾新(창의정신감개신) 선생의 분노는 청춘을 버렸고 창의의 정신은 갠개가 새롭구나.

報國深誠忠勇士(보국심성충용사) 救民智略仰賢人(구민지략양헌인) 보국의 심정은 용사의 충성이요 구민을 위한 지략은 현인으로 우리러 보네.

文章合理明倫顯(문장합리명륜현) 講學從師正俗彬(강학종사정속빈) 문장을 합리화하니 명륜이 현안되고 스승을 따라 강학을 하니 정속이 빛나네.

四海儒林崇慕裏(사해유림숭모리) 抗倭偉勳萬年伸(항왜위적만년신) 사해의 유림들이 숭모하는 중에 왜인에게 할거한 큰 공적 만년 두고 펼쳐지리.